



“민선9기, 강한 전북 · 체감성장 실현”

이원택 도지사직 인수위 출범

인수위장 등 총 198명 규모 5개 분과 · 3개 특위로 운영 이 당선인 “도민주권 정부 내발적 성장으로 대도약” 도정 핵심 정책과제 구체화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하며 새로운 전북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은 갖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신형식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인수위원, 자문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 도정의 성공적인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이원택 당선인은 신형식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에 인수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 위원장은 “전북은 지금 새로운 문명 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새민금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퍼지컬 AI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 유치가 전북 경제 지평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부 투자 유치뿐 아니라 전북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10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 신형식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신형식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총 198명 규모로 구성했다.

조직은 재생에너지 · 퍼지컬 AI · 미래산업분과, 체감성장분과, 도민주권분과, 글로벌분과, 도민행복분과 등 5개 분과와 호남 · 제주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2036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 2030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운영계획 보고를 통해 “인수위는 도정 운영 방향 설정과 정책 기조 수립, 기존 사업 점검 및 평가, 미래 성장전략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재생에너지와 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 도민주권

실현, 도민행복 증진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택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전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꼽았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기업 유치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전북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 · 군이 적극적으로 전북의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규제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또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가치로 “도민주권”을 제시했다. 그는 “도지사의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책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도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도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지사 집무 공간 개방 확대와 현장 중심 행정,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과 관련해 “향후 AI 산업과 첨단 제조업 시대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전북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전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전북 산업 구조를 바꿀 핵심 열쇠”라며 “퍼지컬 AI와 반도체, 농생명 · 식품바이오 산업을 연계해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말까지 실국별 업무보고와 주요 정책 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민선 9기 도정의 비전과 핵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공약 실천 과제와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활동 결과를 담은 백서를 7월 20일까지 제작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전북지사는 이번 인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강한 전북, 체감성장’이라는 도정 목표로 미래산업 육성과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건설현장 고위험 고소작업, 로봇으로 대체

도, 김제서 플랫폼 구축... 연구 · 실증 기반 마련키로

가운데 위험 작업의 자동화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이룰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20여원을 투입해 김제시 일원에서 추진된다. 전북지도와 김제시는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계연구

원, (주)호르 등 전국 26개 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건설현장 특화 로봇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연구 · 시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시설 건립은 올해 본격 추진되며, 인간-로봇 원격 협업 기반 고소작

업 시스템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소작업 로봇시스템 시험연구장기 구축과 연구동 · 실증동 조성, 실의 고소시험장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한 확장현실(XR) 기반 원격 협업기술(움짱 · 도장 · 내화뽀칠)과 자율주행 · 정밀제어 기술을 접목한 고소작업 로봇 개발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현장 실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위험한 고소작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도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북지사는 이번 사업이 건설로봇 분야의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 최철, 이하 소리축제)의 본 행사가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소리축제는 25회차를 맞는 뜻깊은 해로, 그동안 쌓아온 축제의 예술적 성과와 공공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새로운 조직위원장(최철)과 집행위원장(김정수)을 비롯해 새롭게 꾸며진 조직 · 집행위원 등 집행부와 함께 지역의 예술가와 관객, 지역 사회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축제 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키워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이며, 2011년부터 시작된 소리축제의 정체성과 확장성을 담았다.

이어 올해 포스터는 2011년부터 25회차를 맞은 2026년까지 축제가 품어온 다양한 소리와 그 여정을 함께한 이들의 숨결을 겹겹이 층층이 쌓인 선의 흐름과 전통 오방색을 기반으로 한 색채로 형상화했다.

한편, 주요 프로그램 및 일정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친환경으로 미래를 짓다

누구나 찾고, 머물고, 살고 싶은 곳, 친환경·지속가능한 개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치를 높이고 당신의 꿈을 담아 전북의 미래를 짓습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